

# 상담·유해환경감시... '원스톱 서비스'

### 보령 청교련 '청소년 문화의집' 수탁



정은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3개, 1995년과 1998년 보령시와 국무총리실 청소년

## 요가, 난타, 드럼 배우기 등 마련 초등생도 참여 어린이 포교 기대

보령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이들 시설은 보령 청소년 시설의 핵심이자 전부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령지부가 최근 보령시로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위탁받았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에서 세운 지하1층 지상 3층(400평 규모)의 문화 공간. 보령에서는 유일한 청소년 문화시설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기존에 운영되던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3개 시설도 문화의 집 개관과 함께 이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하나로 합쳐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사업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그 형태는 바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란 청소년들이 한 시설 안에서 문화, 자원봉사, 상담, 유해환경감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청소년 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원하는 분야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전국에서 보령이 유일하다.

현재 보령의 학교 수는 초등학교 34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을 합쳐 모두 53곳. 하지만 청소년상담센터 등 기존 3개 시설의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

를 제외하고는 중·고·대학생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어린이·청소년 마당'으로 자리 잡게 된다.

시설 이용 청소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상담센터 등 기존 3개 시설 이용 학생수가 연간 4000명 선이지만 문화의 집이 개관하게 되면 4개 시설 이용 학생수는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 식은 "이제는 청소년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며 "불교를 표방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포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370년 전 송광·천은사 함께 불사

### 송광사 설법전서 감로사 명문 기와 발견



송광사 설법전서 변와 작업 중 발견된 기와.

370년 전 순천 송광사와 구례 천은사간의 교류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어 화제다.

송광사 박물관(관장 고경 스님)은 최근 "지난 3월 3일 설법전서 변와 작업 중 명문인 새겨진 망와(임막새) 4개를 발견했으며 명문을 판독한 결과 1630년 천은사에서 제조된 것이다"고 밝혔다.

고경 스님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망와 가운데 3개에 '경오년 4월 감로사 기와(庚午年四月 甘露寺瓦)'라고 비교적 상세한 명문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며 "1630년 경오년 지금의 천은사인 감로사 기와를 뜻

한다"고 말했다.

구례 천은사는 828년 감로사로 창건되었다가 1679년 단우선사가 중수 후 천은사로 사명을 개칭한 것으로 보아 1630년 천은사 전각의 변와 작업 때 제작된 기와가 송광사에 온 것으로 추정된다.

고경 스님은 "명문에 새겨진 시주자 최영호(崔永浩)는 3년 후인 1633년 7월에도 송광사 현자암 중건 당시 시주자로 송광사에 기록되어 있어 송광사와 인연 깊은 인물로 여겨진다"며 "어떤 연유로 천은사 기와가 송광사에 쓰였는지는 상세한 조사를 통해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명문 망와 가운데 다른 1개에는 '정덕삼년무진오월일(正德三年戊辰五月日)'과 '說○○'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어 "1508년 5월 설법전을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은사 명문 망와가 발견된 송광사 설법전은 1210년 보조국사 법륜을 설하던 곳으로 이곳에서 최후법문을 한 뒤 좌탈입말했다. 이 전각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다가 1968년 중건됐다. **이준엽 기자**

## 선각종 음천사 전통사찰지정



선각종 음천사 전통사찰 지정기념 대법회.

대한불교 선각종 총본산 음천사주지 진수는 지난 3월 20일 전통사찰 지정을 기념

해 국민대인기원 및 국운융창 대법회를 병행했다. 대총사 주지 명산 스님은 축사에서 "음천사의 전통사찰 지정을 축하하며 포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영 전남도지사도 "전통사찰 지정을 계기로 더욱더 지역민을 화합하고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전통사찰로 자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참석자들과 음천사 경내에 마련된 국민대인기원 대법회, 호국영령 추모비를 제막하고 "선각종 산하 350여개 사암의 총본산인 음천사는 백제 불교를 계승해 호남불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준엽 기자**

# '진면목 알고 실천하는 불자되자'

### 광주 재가화엄학림 개교... 150명 입학



재가 화엄학림 개교 기념 티셔츠 케팅 장면.

불교의 화엄사상을 익혀 사회에 실천하기 위한 재가 화엄학림이 문을 열었다.

실상사 화엄학림과 (사)재비신행회는 지난 3월 26일 광주 재비신행회 교육관에서 제1기 재가화엄학림 입학식을 갖고 첫 강의를 시작했다.

이날 첫 개강한 재가화엄학림은 실상사 화엄학림과 재비신행회가 공동으로 재가자를 위해 운영하는 불교전문 교육기관으로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진이 직접 강의를 맡는다. 학제는 2년제이며 강의는 매주 목요일 주·야간으로 진행된다. (062)234-2732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 남양주 수종사

# 다향으로 열린 도량



수종사를 찾는 내방객들이 삼정헌에서 차를 마시며 미음을 쉬고 있다. 삼정헌은 시와 선, 차가 있다 해서 명명됐다.

"절 아래 맑은 강에는 안개 자욱하고/그림 같은 산봉우리는 하늘 높이 솟았네/너공(雷公)의 큰 업적을 감출 수 없어/가람 중간에 현명탑 세웠는가"

<동다송>으로 유명한 초의 스님이 읊은 시구절이 아니라도 남양주 운길산 중턱에 자리한 수종사(주지 동산)에 오르면 확 트인 풍광에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피어오르는 운무가 발아래 펼쳐지는 날이면 도량은 장관을 이룬다.

도 삼정헌에서 천하일품 맛을 내는 물로 우린 차를 마시고 나면 불교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 수백에 없다"고 말했다.

수종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한가지는 나한기도가 끊이지 않는 도량이라는 점이다. 수종사의 나한 신앙은 창건일화에서도 확인된다.

조선 세조 임금이 운길산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괴이하게 여겨 찾아와보니 184나한상이 모셔진 토굴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다"고 하여 절을 짓

## 시민들 위해 삼정헌 열고 무료차 제공

### 1000일 나한기도 통해 수행처 면모 갖춰

수종사를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발길을 들여놓는 삼정헌(三鼎軒). 일찍이 문화포교에 뜻을 둔 주지 동산 스님이 힘들고 지친 중생들에게 쉼터로 내놓은 공간이다. 수종사를 찾는 이들은 시와 선, 차가 있어 삼정헌이라 불린 이곳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차를 마시고 마음을 쉬어간다. 산 아래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한 통유리에 비친 세상은 차창에 물든 절경이다.

주말이면 수종사는 1000여명의 방문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중생을 끌어안는 도량이야야 한다는 동산 스님의 소신으로 종교를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도량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삼정헌의 팽주 전해륜(46) 보살은 "다른 종교인이라

고 나한도량 수종사(水鑪寺)라 이름지은 것. 이곳에서 출토된 금동나한상은 보물로 지정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1000일 나한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수종사는 4월 1일 400일 회향을 맞았다. 이 기도가 끝나면 또다시 1000일 나한기도가 시작된다. 수종사 불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나한기도를 통해 불국토를 이루는 보살 나한이 되기를 서원하고 있다.

주지 동산 스님은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종사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고 기도 소리 끊이지 않는 수행도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31)576-8411 **박봉영 기자**

# 개국 10주년 불교TV 큰스님 초청특별법회

불교TV에서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를 병행합니다.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봉행되는 개국 10주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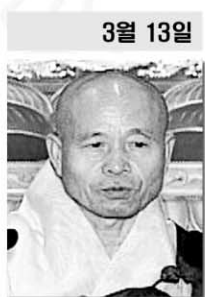
기간 : 3월 6일 ~ 5월 8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소 : 불교TV 무상사 법당

문의 : 02)3270-3300



법장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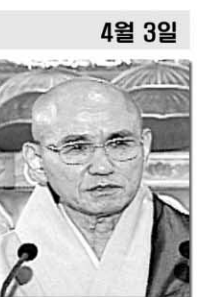
각성스님  
화엄학회 회주



해거스님  
금강선원장



해국스님  
제주 남국선원장



월주스님  
前 조계종 총무원장



보성스님  
송광사 방장



법산스님  
前 정각원장



종범스님  
중앙승가대총장



고우스님  
봉화각화사선덕



묘허스님  
단양방곡사 회주